

“농·축산물 수입반대 전국 농민 결의

『정부에
수입 개방 즉각
중단 요구』

대회 개최



「농·축산물 수입반대 전국 농민 결의대회」가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카톨릭여성농민회, 전국농민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한국농우협회, 전국농어민후계자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7개 농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3천명의 농민과 평민당·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경과보고 ▷

대회사 ▷작목별 수입피해 사례보고 ▷소비자단체의 입장 발표 ▷정당의 입장 발표 ▷전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결의문 낭독 ▷화형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지재선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

늘 우리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무절제한 농·축산물 수입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그 불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재선 회장은 이어 「우리 농업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때까지는 비교우위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촉구했다.

한편, 참석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우리 농민 뿐아니라 4천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수입협상 내용마저 숨겨오면서 미국 농·축산물의 수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농민의 생존은 물론이고 민족자존마저 훼손한 굴욕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농·축산물 수입을 결사 저지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전국 농민들은 결의대회를 마친후 「농·축산물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이란 글이 적힌 2m 높이의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졌다.

1부 행사를 마친후 참석자들은 「쇠고기수입 결사반대」라고 쓴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정부는 농민을 기만하지 말라」 「결사반대 쇠고기 수입」 「양축가의 살길은 축산물 수입 저지뿐」 등이라고 쓴 대형 프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2천여 전투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했다. 소 2마리를 태운 트럭까지 가세한 국회의사당에서 참석자들은 「농·축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투경찰과 대치하던 중 전투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오후 5시경 강제 해산되었다.

한편, 여의도 광장과 국회의사당 중간에 위치한 축협중앙회에는 이날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형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으나, 철로 된 셔터문이 내려져 있어 양축가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현관벽에 걸린 현판이 양축가들 손에 내동댕이쳐 지는 수도를 당하기도 했다.*

〈취재 : 김동성〉



작목별 피해사례 보고에서 장석현씨(충북 음성)는 「농번기에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농·축산물 수입반대 결의대회를 열게 한 책임은 위정자들에게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즉각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부가가치세를 철회하라

자국민을 위한 농·축산물 수입강요를 즉각 철회하라 ▷재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농·축산물 수입을 그만두고 농·축산 분야에서 즉각 물러가라 ▷국회는 농축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